

한국 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黄 慧 瓊*

(e-mail: hhk5500@daum.net)

目 次

- | | |
|---------------|-------------------------------|
| 1. 서론 | 3-2 조사항목 및 분석 |
| 2. 재일동포의 개관 | 4. 조사결과 및 분석 |
| 2-1 재일동포의 의미 | 4-1 기본사항 및 가치관·민족의식에
관한 사항 |
| 2-2 재일동포의 호칭 | 4-2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 |
| 2-3 재일동포의 역사 | 4-3 성별 |
| 3.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 5. 결론 |
| 3-1 조사방법 및 대상 | |
-

1. 서론

최근에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는 재일동포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겪었던 노년층조차도 일본에 대한 반감만 컸을 뿐 재일동포와의 교류며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물며,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더 없을 것이다.

저자 역시도 1990년대 대학 시절 일본에 처음 가기 전까지는 재일동포에 대한 생각도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재일동포가 누구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들의 처지도 알게 되

* 남서울대학교 강사, 일본학전공

었다. 재일동포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선입관을 가졌었다.

과거에는 재일동포로 유명한 사람하면 신격호 회장과 같은 기업인 등의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통해서도 재일동포에 관한 특집, 재일동포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많이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재일동포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추성훈, 소닝, 정대세 등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이며, 이들을 보면서 재일동포를 연상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일본에 한류 붐이 시작되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시기로, 일본에서 차별과 무시 때문에 자신이 재일동포임을 숨겼던 사람들도 자신이 재일동포임을 드러낸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다(黃 2008). 즉, 재일동포란 존재가 일본인에게도 한국인에게도 주목받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재일동포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교육면·사회면·정치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970년대까지는 일제강점기의 상징인 강제연행에 관한 문제(朴 1965)가 거론되어왔고, 이어서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大沼 1980), 차별문제(辛 1983), 재일동포자녀의 교육상황의 적응 및 실태에 관한 교육문제(申 1982, 馬越 1989), 지역사회참여 및 민족운동(高橋 1996, 五味田 1996)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전후로 민족운동, 민족교육, 귀국과 귀화 의지 등의 의식에 관한 조사가 행해졌으며, 이후에 재일동포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原尻 1986, 福岡 1993, 黃 2001, 黃 2002)가 계속되고 있다. 근래에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朴 1999, 山田 2010), 공생사회 문제(金 2002)가 대두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재일동포 고령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도 되고 있다(趙 2009, 黒木 2011, 仲尾 2013). 현 시점에서는 과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정책도 개선되고 있어 민족운동보다는 앞으로 자손들의 생활터전인 일본에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일본사회에서 의무만이 아니라 어떻게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일본에서의 재일동포의 차별이나 현황, 재일동포의 아이덴티티,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참정권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한국 사람들이 재일동포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재일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가치관 및 민족의식,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후, 그것을 성별로 나눠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재일동포의 개관

2-1. 재일동포의 의미

재일동포를 최근에는 흔히 2가지로 나뉘어서 일컬어진다. 하나는 올드커머(old comer), 다른 하나는 뉴커머(new comer)라고 구분 짓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재일동포란 올드커머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1910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의 시기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을 지칭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이들은 일본기업의 모집으로 일본에 건너가거나, 일본의 강제연행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너간 사람들이 많다. 한편, 뉴커머는 1970년대 전후로 유학, 취업, 결혼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 때문에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로, 둘은 구분한 필요가 있다.

2-2. 재일동포의 호칭

재일동포에 관한 일본에서의 호칭은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등으로 다양하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기까지는 조선인으로 불렸다. 일본 패전 이후 「재일조선인」이라 칭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재일조선인 역시 조선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나뉘었다. 이 당시 조선 국적이 많았던 것은 원래 한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1965년 한일협정조약 이후 조선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많이 변경되었다. 한국 국적은 일본 정부에서 한국 재외국민으로 인정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조선국적은 일본에서 무국적이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일본에서 국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외국에 나갈 시 제한이 많았다. 조선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북한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원래 조선이었기 때문에 바꾸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1970년대부터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다가 1980년도 후반부터 한국 국적과 조선 국적을 하나로 합친 「재일코리안」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저자 역시 「재일코리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반사람들에게는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는 아직 친숙하지 않아, 설문지에 「재일동포」라는 호칭을 사용, 본 논문에서는 「재일동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3. 재일동포의 역사

2-3-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역사

재일동포 형성 과정에 관해서朴(1979)과杉原(1991)의 연구에 근거해 도향 현황을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1909년 이전)는 한일합병 이전으로 조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본 거주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1910~25년, 유치기)는 전기와 후기로 세분된다. 전기(1910~19년)는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조선인의 일본 입국은 자유롭게 됐지만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인구가 부족한 일본 기업이 조선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1919년까지 거주 인구는 3만 6천 명이고, 남성 혼자서의 이주가 대부분이었다. 후기(1920~25년)가 되면 1918년 미국 파동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식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내놓은 산미 증식계획으로, 조선 농촌사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1925년에 18만 7천 명에 이른다.

세 번째 시기(1926~38년, 억제기)는 1926년부터 산미 증식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조선농가에서 살기 힘들게 되어, 일본에 건너가는 사람이 많았다.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국가총동원법 시행 직전까지 거주인구의 변화는 1930년 약 41만 명에서 1938년 약 88만 명으로 급증했다.

네 번째 시기(1939~45년, 강제징용기)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및 1939년 국민징용령을 받아 이른바 강제연행이 열린 시기로 거주인구의 연평균 증가 수는 2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것으로, 1945년에는 약 210만 명에 이른다.

2-3-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 재일동포는 약 210만 명에 달했다. 그 중 본국으로 많은 사람이 귀국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남은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과 후손이 남아 일본에 정착하게 되어, 전후의 인구는 60만 명 안팎을 지속하고 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 재일동포는 일률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역사적인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 약 반세기 살았던 재일동포와 그 자손은 위상이 변하여 외국인으로 처우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각종 제도적 제한, 차별이 생겨났다. 동화·억압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일본인의 조선인 멸시와 차별은 끊이지 않았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참정권 문제·고용·생활 등의 차별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일동포는 차별에 저항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불이익을 피하고자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3.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3-1. 조사방법 및 대상

본 논문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동양미래대학, 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중부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¹⁾.

조사기간은 2011년 6월부터 7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인터뷰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11부를 회수했고,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697부를 유효한 설문지로 확보했다.

3-2. 조사항목 및 분석

조사항목²⁾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사항 및 가치관·민족의식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으로 크게 분류했다.

우선 기본사항으로 「성별」, 「연령」 2항목, 그리고 대학생들의 가치관 및 민족의식이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에 관련된 문항으로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경험」, 「국내외에서 재일동포 만난 경험」, 「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도」, 「한민족이라 생각하는 빈도」,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를 포함한 11항목, 재일동포에 관련된 문항으로 12항목, 총 24항목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작성했다.

분석방법으로는 회수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로 항목 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카이스퀘어(χ^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및 분석

4-1. 기본사항 및 가치관·민족의식에 관한 사항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성별은 여성이 60%, 남성이 40%를 차지했다. (2)연

1) 조사방법으로 무작위추출법에 의한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것은 표본조사가 아닌 일종의 전형조사로 본 조사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조사로 정확한 표본조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한 학교가 아닌 서울과 서울이외의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2)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에서의 조사항목 중 필요한 항목은 참고함. 이 조사는 단순 결과보고로서 저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없었다.

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계로 20대가 약 97%를 차지했다. 대학생들의 (3)해외체류 경험의 여부에 따라서 재일동포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사해 본 결과,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없는 학생이 대다수로 96.2%를 차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3.8%를 차지했다. 또한, (4)재일동포를 만난 경험의 여부에 따라서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해 본 결과 국내외에서 재일동포를 만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약 22%, 없는 학생은 78%로 재일동포를 만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표1 기본사항 및 가치관·민족의식에 관한 사항

항목	구분	%	항목	구분	%
(1)성별	여성	60.0	(8)우리역사 금지도	매우 자랑스러움	15.1
	남성	40.0		대체로 자랑스러움	44.6
(2)연령	10대	3.2		보통이다	33.9
	20대	96.8		부끄러운편	6.2
(3)해외 체류 경험	있다	3.8		매우 부끄러운편	0.3
	없다	96.2	(9)한민족이라 생각하는 빈도	매우 자주	6.3
(4)재일동포 만남경험	있다	21.6		자주	23.7
	없다	78.4		가끔	46.7
(5)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	한국인	45.1		거의 하지않는다	22.0
	북한인	1.3	전혀 하지않는다	1.3	
	일본인	27.7	(10)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금지도	커다란 금지	12.5
	일반 외국인	10.2		어느 정도 금지	64.3
	모르겠음	15.7		별로 없다	20.7
		전혀 없다		2.4	
(6)재일동포 일본에 건너간 시기	1945년	65.5	(11)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	대한민국 국적	15.8
	이전(해방이전)	25.7		한국혈통	10.2
	1945년~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8.8		한국어 사용	8.9
	1966년 이후			자부심과 의식	62.1
(7)재일동포 존재 경로	방송	62.5	한국에서 사는 것	2.9	
	인터넷	14.2	(12)가장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	재일동포	18.2
	책	8.7		재미동포	3.3
	신문	2.0		재중동포(조선족)	16.2
	지인(친구나 가족)	6.6		한인입양인	16.1
	기타	6.0		귀화한국인	23.1
		혼혈한국인		23.2	

다음은 대학생들이 (5)재일동포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인이 45.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일본인이 27.7%로 많았고, 다

음으로 모르겠음이 15.7%, 보통 외국인이 10.2%, 북한인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6)재일동포는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일동포가 일본에 건너간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1945년 이전(해방 이전)이 6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45년~1965년(한·일 국교정상화)이 25.7%로 많았다. 많은 학생이 1945년 이전에 건너가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7)재일동포라는 존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조사해 본 결과, 방송이 6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이 14.2%, 책이 8.7%로 많았다. 최근에 재일동포 출신 추성훈, 정대세, 소닝 등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다음은 대학생들의 가치관 및 애국심의 차이에 따라서 재일동포에 관련된 인식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다음 항목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8)우리 역사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항목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도에서 대체로 「자랑스러움」이 44.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자랑스러움」이 15.1%로 둘을 합하면 자랑스러움이 거의 60%를 차지했다. 그리고 「보통이다」가 33.9%, 「부끄러운 편」과 「매우 부끄러운 편」을 합하면 6.5%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한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9)한민족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조사해본 결과 「가끔」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주」가 23.7%, 「거의 하지 않는다」가 22.0%로 많았다. 그리고 「매우 자주」가 6.3%, 「전혀 하지 않는다」가 1.3%를 차지했다. 결과로 보면, 많은 한국대학생은 한민족이라고 46.7%가 가끔 생각하며, 「자주」와 「매우 자주」를 합친 30%의 학생들이 자주 한민족이라 생각하여, 한민족이라는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와 「전혀 하지 않는다」를 합치면 23.3%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면, (10)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는 어떤지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긍지」가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로 없다」가 20.7%, 「커다란 긍지」가 12.5%, 「전혀 없다」가 2.4%를 차지했다. 「어느 정도 긍지」와 「커다란 긍지」를 합치면 76.8%로 많은 학생이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23.2%의 학생은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음은 학생들이 진정한 (11)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자부심과 의식」이 62.1%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적」, 「한국혈통」, 「한국어 사용」, 「한국에서 사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뜻밖에 국적이거나 혈통보다는

자부심과 의식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누구를 가장 한국인에 가깝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혼혈한국인」 23.2%, 「귀화 한국인」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일동포」 18.2%, 「재중동포(조선족)」 16.2%, 「한인입양인」 16.1%, 「재미동포」 3.3%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귀화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이 좋아서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 문화며 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혼혈한국인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으로 한국인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국외보다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혈통, 국적보다는 자부심과 의식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4-2.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

다음은 한국 대학생들이 재일동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표2).

(1)재일동포에게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는가의 질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46.1%로 가장 많았고, 「별로」가 29.2%, 「조금 가깝게」가 18.1%, 「전혀」가 4.5%, 「아주 가깝게」가 2.2% 순 이었다. 거의 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중립적인 의견이었고,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35%에 가까운 수치로, 친근감보다는 관심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2)재일동포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 「보통이다」가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그렇다」가 32.5%로 많았다. 그러나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치면 그렇다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 항목 역시 중립적인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이 많았으나, 위 (1)항목의 친근감을 느끼는지에 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중립적인 의견인 46.1%보다는 수치가 거의 10% 정도 감소했다. 반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1)항목의 20.3%에 비해 36.7%로 16% 정도 증가했다. 또한, 부정적인 의견인 「관심 없다」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1)항목의 33.7%에 비해 28.3%로 5% 정도 감소했다. 이 결과로 대학생들은 재일동포에 친근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재일동포 문제를 우리 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다음은 역으로 (3)재일 동포가 우리 한국·한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는지를 보기로 한다. 그 결과, 「어느 정도 관심」이 40.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33.7%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서 「별로 관심 없다」가 17.1%, 「매우 관심」이 7.5%, 「전혀 관심 없다」가 1.4% 순 이었다. 여기

서는 중립적인 입장인 「보통이다」보다 「어느 정도 관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위 (1) (2)항목과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의견인 관심을 둔다는 의견이 거의 50% 정도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의견인 관심 없다는 의견도 18.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대학생들 자체는 재일동포에 친근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도 재일동포는 한국·한국인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2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

항목	구분	%	항목	구분	%
(1)재일동포에 게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는가	아주 가깝게	2.2	(7)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	매우 그렇다	3.7
	조금 가깝게	18.1		조금 그렇다	16.8
	뒤편하고 말할 수 없다	46.1		뒤편하고 말할 수 없다	35.6
	별로	29.2		그렇지않다	36.9
	전혀	4.5		전혀 그렇지않다	7.0
(2)재일동포 문제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4.2	(8)재일동포는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14.2
	조금 그렇다	32.5		일본	42.2
	보통이다	35.1		똑같다	25.1
	별로 관심 없다	25.6		뒤편하고 말할 수 없다	18.5
	전혀 무관하다	2.7			
(3)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	매우 관심	7.5	(9)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이것에 관한 생각	매우 옳다	5.8
	어느 정도 관심	40.2		대체로 옳다	45.5
	보통이다	33.7		한민족 공동체정책 우선	19.6
	별로 관심 없다	17.1		잘 모르겠다	29.2
	전혀 관심 없다	1.4			
(4)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이라 생각하는가	미국	17.4	(10)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	아이덴티티	35.8
	일본	10.1		거주국 정착을 위한	29.3
	둘 다 똑같다	58.3		정보제공	31.4
	뒤편하고 말할 수 없다	14.2		재외국민 보호활동	3.5
				기타	
(5)재일동포와 재미동포 중 어느 쪽에 친근감을 더 느끼는가	재일동포	65.9	(11)재일동포가 한국에서의 거주 희망에 관한 생각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25.1
	재미동포	4.0		선별적으로	61.8
	둘 다 똑같다	15.4		받아들여야 한다	2.3
	뒤편하고 말할 수 없다	14.7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0.8
				잘 모르겠다	
(6)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	매우 그렇다	26.0	(12)재일동포가 참정권 행사 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	긍정적인 효과 매우 큼	2.7
	조금 그렇다	47.3		긍정적인 효과 조금 큼	15.7
	뒤편하고 말할 수 없다	10.8		비슷하다	53.8
	그렇지않다	13.5		부정적인 효과 조금 큼	21.2
	전혀 그렇지않다	2.4		부정적인 효과 매우 큼	6.5

다음은 국가 간의 친밀도를 알아보는 문제로 (4)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65.9%로 가장 많았고, 「둘 다 똑같다」가 15.4%, 「뭐라고 말할 수 없다」 14.7%로 많았고 「일본」이 4.0%로 가장 적었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역사적인 문제로 지금도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그 영향으로 젊은 대학생들도 한국이 미국과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이 우호적이라고 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면,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비교해 보면 (5)재일동포와 재미동포 중 어느 쪽에 친근감을 더 느끼는가에 대해서 「둘 다 똑같다」가 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일동포」가 17.4%,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14.2%, 「재미동포」가 10.1% 순 이었다. 둘 다 똑같다가 가장 많은 것은 둘 다 우리 동포이기에 같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재미동포보다는 재일동포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재일동포는 거리상 가까이 있어서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6)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가 47.3%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가 26.0%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서 「그렇지 않다」가 13.5%, 「뭐라고 말할 수 없다」 10.8%, 「전혀 그렇지 않다」가 2.4% 순 이었다. 이 결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이 바로 일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7)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가 36.9%,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3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그렇다」 16.8%, 「전혀 그렇지 않다」가 7.0%, 「매우 그렇다」가 3.7% 순 이었다. 이 결과는 (6)과는 차이가 있었다. (6)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는 것과 그렇다를 합친 73% 정도가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 (7)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에 대해서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 45%, 애매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36%로 직접적인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는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에 가깝다고 생

각하는지를 (8)의 결과를 보면, 「일본」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똑같다」가 25.1%, 「뛰라고 말할 수 없다」가 18.5%, 「한국」이 14.2% 순이었다. 이 결과로 보면 대학생들은 재일동포가 한국보다 일본에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은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9)를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좋다」가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29.2%, 이어서 「한민족 공동체 정책이 우선」이 19.6%, 「매우 좋다」가 5.8% 순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50% 이상의 학생들이 재일동포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인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도 거의 30%로 젊은 대학생들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을 어느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본 결과, 「아이덴티티」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외국민 보호활동」이 31.4%, 「거주국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이 29.3%, 「기타」가 3.5% 순이었다.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을 같은 민족인 아이덴티티라 하였으며, 나머지는 재일동포를 위한 정보나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재일동포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재일동포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11)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가 6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가 25.1%, 「잘 모르겠다」가 10.8%,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가 2.3% 순이었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많긴 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합치면 거의 87%로 많은 학생이 우리 민족이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음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줬을 때 영향에 관해서 보도록 한다.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12)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비슷하다」가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정적인 효과 조금 큼」이 21.2%, 「긍정적인 효과 조금 큼」이 15.7%, 「부정적인 효과 매우 큼」이 6.5%, 「긍정적인 효과 매우 큼」이 2.7% 순이었다. 이 결과로 보면 반 이상의 대학생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많았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국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향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성별

앞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기본사항 및 그들의 가치관과 민족의식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 항목들에서 성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단, 지면의 제약이 있는 관계로 성별과 각 항목 간의 관련성이 없었던 항목의 수치는 표1과 표2에 제시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본 논문에서는 성별과 관련이 있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결과, 「성별」과 「재일동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가장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관계」·「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생각」·「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성별·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

N=687

		재일동포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인	북한인	일본인	그냥 외국인	모르겠음
성별	여성	41.2%	1.0%	30.4%	9.3%	18.1%
	남성	50.9%	1.8%	23.7%	11.5%	12.2%

*P<0.05

우선 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관해서 본 결과 표3과 같이 재일동포를 「한국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인」이라는 학생들이 많았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10% 가까이 많았으며, 「일본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7%정도 많게 나타났다. 즉, 성별로 비교해 보면 재일동포를 여성은 남성보다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여성보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4 성별 ·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

N=695

		본인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커다란 긍지	어느 정도 긍지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성 별	여성	9.4%	69.5%	19.2%	1.9%
	남성	17.2%	56.6%	22.9%	3.2%

*p<0.05

다음은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에서 표4와 같이 「커다란 긍지」와 「어느 정도 긍지」를 합쳐보면 긍지를 가지는 학생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를 합쳐 긍지가 없는 학생들을 본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더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5 성별 · 가장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

N=672

		누가 가장 한국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재일 동포	재미 동포	재중동포 (조선족)	한인입양인	귀화한국인	혼혈한국인
성 별	여성	14.6%	2.7%	16.1%	17.4%	22.8%	26.3%
	남성	23.4%	4.1%	16.4%	14.1%	23.4%	18.6%

*p<0.05

그리고 표5와 같이 가장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재일동포」라고 한 사람 중에 남성이 여성보다 9% 정도나 많았고, 반면, 「혼혈한국인」인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8% 정도 많았다. 이것은 재일동포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한국인이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표6 성별 ·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 관계

N=695

		한국의 미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이라 생각하는가			
		미국	일본	둘 다 똑같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성 별	여성	68.3%	4.8%	11.8%	15.1%
	남성	62.4%	2.9%	20.8%	14.0%

**p<0.01

다음은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 관계에서 표6과 같이 남성들은 둘다 똑같다는 수치가 여성보다 많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미국이라고 답해준 수치가 약간 높았다.

표7 성별·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생각

N=695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옳다	대체로 옳다	한민족 공동체 정책이 우선	잘 모르겠다
성	여성	3.6%	45.1%	18.7%	32.6%
별	남성	9.0%	46.0%	20.9%	24.1%

**p<0.01

그리고 표7과 같이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생각으로 남성 여성 둘다 대체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많았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여성의 비중이 컸으며, 매우 옳다고 한 학생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표8 성별·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

N=692

		앞으로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이덴티티	거주국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재외국민 보호활동	기타
성	여성	38.8%	26.0%	32.3%	2.9%
별	남성	31.4%	34.3%	30.0%	4.3%

*p<0.05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으로는 표8과 같이 여성의 경우는 아이덴티티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고, 다음으로 재외국민 보호활동이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거주국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남성의 경우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표9 성별 ·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

N=693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크다	비슷하다	부정적인 효과가 조금 크다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성 별	여성	2.2%	12.3%	55.9%	24.1%	5.5%
	남성	3.6%	20.9%	50.7%	16.9%	7.9%

**p<0.01

다음은 표9와 같이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하다가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남성의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상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로 대학생들의 기본사항, 둘째로 그들의 가치관 및 민족의식에 관련된 사항, 셋째로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으로 크게 나눠서 고찰해 보았다. 또한, 넷째로 이것들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았다.

첫째, 기본사항으로 20대 전후의 젊은 대학생들은 장기 해외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재일동포를 만나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80% 정도나 되었다. 재일동포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로는 대부분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일동포를 45%는 한국인, 30% 정도는 일본인, 10%는 일반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가치관 및 민족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혈통, 국적보다는 자부심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는 재일동포, 재미동포, 재중동포보다는 귀화한국인, 혼혈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 이것도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과 마찬가지로 혈통, 국적보다는 자부심과 의식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대학생들이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일동포에게 친근감을 느끼는가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과 관심이 없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일동포 문제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가에 그렇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많았다. 이것은 재일동포에 친근감을 못 느끼는 학생들도 재일동포 문제는 우리 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일동포가 한국, 한국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학생들은 재일동포에 친근감은 별로 느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재일동포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에 어느 쪽에 우호적인가에 둘 다 똑같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이 많아, 일본보다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럼, 국가를 떠나 재일동포와 재미동포 중 어느 쪽에 친근감을 느끼는가에 재미동포보다 재일동포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재일동포라는 존재를 많이 들었고,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거주국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사는 우리 민족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지만,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에게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일동포는 한국보다 일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다음은 재일동포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본 결과,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학생들은 대체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일동포가 한국에 거주를 희망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재일동포가 한국에서 참정권 행사 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국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권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조사를 성별로 나눠서 고찰해 보았다. 관련성이 있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본 결과, 재일동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서는 재일동포를 여성은 남성보다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남성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민족이라는 긍지도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긍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남성은 재일동포와 귀화한국인이 많았고, 여성은 혼혈한국

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화한국인이었다. 재일동포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10% 가까이 많았다. 이것은 재일동포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한국인이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 관계에서는 상대적 수치비교로 보았을 때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 둘 다 똑같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미국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생각으로 잘 모르겠다는 수치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아 정치적인 문제에 여성의 관심이 적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매우 옳다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는데 남성이 옳고 그름에 결단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할 부분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하고, 남성은 거주국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을 우선시하여, 여성이 오히려 보수적이고 남성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 시 여성은 부정적인 효과가, 남성은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여성이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은 우선 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을 토대로 다음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민족성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나, 다음 연구 과제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초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재외동포재단.
黄慧瓊(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아에 대한 인식변화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36, 451-467쪽.
馬越徹(1989) 「在日韓国・朝鮮人子女の教育における「民族性」保持に関する一考察- 日本教育の「国際化」再考-」 『名古屋大教育学部紀要』 36、315-325頁.
大沼保昭(1980)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に関する一考察」 『法学協会』 97(2), 192-269頁.

- 金台権(2002)「在日朝鮮人も地域と共に生きている」『市民活動情報誌』、37-40頁.
- 黒木 宏一(2011)「西成区北西部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住まいの現状と課題」『コリアンコミュニティ研究』、24-29頁.
- 五味田恵美子(1996)「川崎コリアタウン構想をめぐる地域社会」『お茶の水地理』37、72-84頁.
- 辛基秀(1983)「在日朝鮮人差別の歴史と現状」『部落解放』206、250-258頁.
- 申鉉夏・権藤与志夫(1982)「在日韓国人子弟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調査研究」『九州大学比較教育学部研究施設紀要』33、55-76頁.
- 杉原達(1991)「在阪朝鮮人の渡航過程—朝鮮・済州島との関連—」杉原薫他編『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新評論、215-248頁.
- 高橋満(1996)「在日韓国・朝鮮人の地域教育運動と社会教育」『東北大学教育学部研究年報』44、65-92頁.
- 趙 文基(2009)「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介護問題—二つの社会調査にもとづいて」『桃山学院大学社会学論集』43、51-77頁.
- 仲尾 宏(2013)「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健康と福祉(7)在日コリアンの年金問題の今後」『Sai 編集委員会』、60-62頁.
- 朴一(1999)「アジア観察99(19)国会揺さぶる在日コリアンの参政権問題」『論座』49、180-185頁.
- 朴慶植(1965)『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未来社.
- 朴在一(1979)『在日朝鮮人に関する総合調査研究』新紀元社、1-36頁.
- 原尻英樹(1986)「在日朝鮮人のエスニシティー—筑豊A地区の事例より—」『民族学研究』51(3)、275-289頁.
- 福岡安則(1993)『在日韓国・朝鮮人』中公親書、76-107頁.
- 黄慧瓊(2001)「川崎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正月料理を主たる対象として—」『日本文化学報』10、341-359頁.
- 黄慧瓊(2002)「大阪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第1報)—行事食を主たる対象として—」『日本家政学会誌』53-7、671-680頁.
- 山田貴夫(2010)「地域から考える外国人参政権問題」『月刊自治研』52、10-14頁.

要 旨

本稿は韓国の大学生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を調べたものである。具体的に、一つ目は大学生の基本事項、二つ目は彼らの価値観および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事項、三つ目は在日コリアンに関する事項に分けて考察した。さらにそれを性別にわけて関連性をみ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一つ目は大学生の基本事項として、長期海外の経験はあまりなく、また在日コリアンに会った経験のない人が多かった。そして在日コリアンの存在はマスコミや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知ることになった。このような在日コリアンを45%は韓国人、30%は日本人、10%は外国人に思われていた。

二つ目は大学生の価値観および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調査した結果、韓国の歴史に対するプライドが高く、本人が韓民族であると考え、韓民族であることで誇りを持っている。また、韓国人になれる条件として、血統や国籍より誇りとアイデンティティを大事に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三つ目は大学生が在日コリアン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どう受け入れているのか調べてみた結果、大学生は在日コリアンに親しみをあまり感じていないが、在日コリアンのことをわれわれのことだと考える人が多かった。一方、在日コリアンは韓国に興味深いと思われていた。また、韓国と日本との関係が悪くなると日本人に対する考えは悪くなるが、在日コリアンにはあまり影響は及ばなかった。

四つ目は大学生の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調査を性別に分けて関連性をみた結果、在日コリアンの国籍・韓民族である誇り・一番韓国人に近い人・韓国のアメリカと日本との友好関係・政府の在外コリアン政策・政府が在日コリアンに優先に支援すること・在日コリアンに参政権を与える場合、肯定的な効果と否定的な効果に対する考えにおいては関連性がみられた。

キーワード：大学生、在日コリアン、認識、参政権、韓国人、日本人、性別
アイデンティティ、歴史の誇り、韓民族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